

2010 여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대상별 맞춤 강좌

내 결의 레즈비언과 지지적 관계 맺기

여성이반의 가족/지인 및
현직교사/예비교사와 함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lsangdam.org

하나, 여성이반의 가족/지인 맞춤 강좌

“두려움, 당혹, 걱정, 슬픔, 배신을 넘어 관계맺기”

1강: 7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8시 30분

동성애, 알고 이해하기 + 가족/지인 상담 사례 나눔

2강: 7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4시 30분

영상물 시청 및 수강생 고민 나눔 + 새로운 관계맺기 연습

- 이춘기(Puberty, 윤재상, 2008년, 16분)
- 진심으로(Straight From the Heart, 디 모스배처, 프랜시스 레이드, 1994년, 27분)

둘, 현직 교사/예비 교사 맞춤 강좌

“호모포비아적 제도 교육 현장, 그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는 관계맺기”

1강: 7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8시 30분

동성애, 알고 이해하기 + 십대여성이반 상담 사례 나눔

2강: 7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4시 30분

영상물 시청 및 수강생 고민 나눔 + 새로운 관계맺기 연습

- 이춘기(Puberty, 윤재상, 2008년, 16분)
- 이반검열1(Lesbian Censorship in School 1, 여성영상집단 움, 2005, 27분)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 교육장

맞춤 강좌를 열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는 이란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을 퇴학시켜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선생님. 짝꿍의 숙제 노트를 모르고 집으로 가져와 버린 주인공. 그리하여 주인공은 어떻게든 친구에게 숙제 노트를 가져다 주려고 그의 집을 찾아 헤맵니다. 친구가 퇴학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주인공은 오늘 기필코 친구에게 노트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을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레즈비언 친구 혹은 가족의 마음에 다가가는 여정이 이 영화가 꼭 닮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렵게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고백한 가족과 친구. 레즈비언에게 살갑지 않은 세상.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 하며 가는 레즈비언들. 그래도 혼자서는 외롭고 답답해서 믿고 있던 당신에게 털어 놓아 버린 당신의 레즈비언 친구와 레즈비언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든 레즈비언인 가족 혹은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족 혹은 친구에게 진심을 건네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2010년 여름,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인 나의 친구와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은 이성애자 분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맞춤 강좌는 상담소에서 우연히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내 레즈비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물어왔던 내담자, 내 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하던 내담자, 내 조카가 자신에게만 레즈비언임을 고백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던 내담자 분들의 요청이 오늘 의 강좌를 있게 했습니다.

동성애자 친구와 가족에게 난로가 되어주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고 싶게 하는 첫 번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외롭다는 레즈비언 지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용기를 기꺼이 건네고자 이곳까지 찾아온 당신은 레즈비언 친구에게 작은 꿈이고 커다란 희망입니다.

[자료 1] 동성애, 알고 이해하기

- 여성 이반 경험을 중심으로

1. 관계 맺기, 마음 엮기, 삶 나누기

막힌 마음을 열고, 눌린 감수성을 풀고, 굳은 상상력을 녹여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먼저,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동안 겪어 온, 앞으로 경험할 모든 관계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어떻게 맺었으면 좋았을지, 어떻게 맺어야 바람직할지, 골똘해져 보는 것이지요.

아마 특별히 정답이다 싶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관계의 성격에 따라, 관계된 이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 관계 속에 가로놓인 무수한 사안들에 따라, 적절한 관계 맺기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보다 마음이 잘 통하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하며, 한결 기분 좋고 유의미한 관계 맺기를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지혜만은 늘 주목할 만 합니다. 이는 바로 타인을 타인의 입장에서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타인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타인에게도 자리잡고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하는 깊은 사려 말이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해도 영 동성애가 이해되지 않는 분이라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느꼈던 실로 다채로운 설렘, 애정, 욕망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 혹은 그를 왜 사랑했나요? 이 물음이 우문으로 들린다면, 이를 동성애자들에게 도로 던질 수 없을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사랑에 빠진 상대를 향해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무수한 애끓음과 열망, 그것과 꼭 같습니다.

십대 청소년들의 달뜬 감정과 격렬한 몸부림이 서툴러 보이기만 하고, 그로부터 어쩐지 진

지함을 못 느끼겠다면, 스스로의 십대를 한 번 돌이켜 보세요. 그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어떤 감정에 몰두했는지, 내게 절실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기억해 봅니다. 어른들의 몰이해에 분노하며 자기 마음에 집중했던, 당찬 내면의 나 자신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모르니까요.

부모님, 자매형제, 절친한 친구들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대껴 하는 모습이 나에게 깊은 생채기를 내나요? 그런데 가만 되짚어 보면 내가 나를 탐색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역시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자신을 긍정하기까지, 내 마음의 물길에 여울목 하나 없이 잔잔하기만 한 건 아니었지요. 나의 부모님도, 언니오빠도, 동생들도, 친구들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편견 없는 정보를 접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성별, 나이, 학력, 장애유무, 계급, 가족상황, 병력, 외모, 거주지, 인종, 민족 등), 자신이 누리는 사회적 자원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기회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일상을 영위할 기회 등을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거부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도 사회적으로 편중돼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학풍을 지닌 학제가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동성애를 기존 사회 규범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애에 대한 뿌리깊은 무지와 근거 없는 혐오를 나의 내면과 나의 주변에서 맞닥뜨린다 해서 지레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동성애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기회를 늘려가는 데 더욱 공을 들여 보아도 좋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폭넓게 퍼뜨려 보다 많은 사람이 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동성애자로 살아가기 힘든 당신, 동성애자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몰라 괴로운 당신,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어 막막한 당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도, 대책 없는 관계인 것 같아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때로 고단할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덜 조급하게, 보다 느긋하게, 지금 당장 감당 가능한 만큼, 조금씩, 숨 고르며, 내 곁에 있는 이를 살피고, 나를 돌보며, 가끔은 멈춰 쉬기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천천히 느릿느릿 가요. 마침내 서로 통하는 그날까지, 무더위, 비바람, 폭설을 헤치는 요령 몸에 하나씩 새기며, 그렇게 가요.

그럼 이제 두려움과 막막함의 문을 살며시 열고, 마음의 벽장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 볼까요?

2. 용어가 익숙하면, 존재가 다가온다

아래 용어 설명은, 이성간의 사랑과 성역할 규범을 벗어난 사랑, 성별 표현, 그리고 성적 실천 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걷어 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부당한 낙인을 거부하고, 다양한 존재를 공정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담겨 있지는 정의이자 설명이지요.

편견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데 머물지 않아요. 그 자체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새롭게 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실천이랍니다. “처녀막”을 “질주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윤락녀”를 “성매매피해여성/성관매여성/성노동자”로 대체하고, “폐경”을 “완경”으로 재의미화 하고,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다시 이름 지으면서 우리는 원래의 말이 불러일으키는 특정 존재에 대한 혐오와 편견 그리고 배제적 태도를 고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보태어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설명은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된 완결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들은 저마다의 경험, 운동 신념,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하나하나의 용어에 대해 제각기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곤 합니다. 사회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하기에 용어의 뜻과 용어들이 가리키는 존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몫이, 우리들 전부에게 고루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 자료 외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정의/설명들을 접하게 된다면, 아래 자료와 비교해 보며 고민을 심화시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첫 번째 용어 묶음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동성애/동성애자 (homosexuality/homosexual)¹

¹ 다음 낱말들은 동성애/동성애자를 경멸하고 비하하는 표현들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연애/동성연애자, 호모(새끼), 변태 등.

- 게이 (gay)
- 레즈비언 (lesbian)

양성애/양성애자 (bisexuality/bisexual)

이성애/이성애자 (heterosexuality/heterosexual)

성정체성이란 성적지향²을 매개로 한 정체성입니다. 본인이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감정적,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가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이지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감정적,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가 동성이고, 본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 그 점을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정체성 안에 자리 잡도록 할 경우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이 때 레즈비언은 여성동성애자를, 게이는 남성동성애자를 이릅니다. 둘 다 서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입니다. 여성동성애자, 남성동성애자라는 말보다 레즈비언, 게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더 잦지요. 서구에서는 여남 동성애자 공히 게이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하는 경우가 지금도 꽤 많습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레즈비언이라는 말과 게이라는 말이 성별에 따라 명확히 분리되어 사용되는 편입니다.

레즈비언은 레스보스(Lesbos)³ 섬에 살았던 걸출한 고대 여성 시인 사포(Sappho)⁴와 그녀의 여성 동료들/친구들/연인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게이는 본디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낱말로, 동성애자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고 비하하는 억압적, 폭력적 사회에 맞서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미국의 반전평화운동, 흑인민권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이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던 무렵, 동성애자들도 이러한 이름 붙이기로 자긍심을 다지기 시작했던

²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중,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11&PROM_NO=09402&PROM_DT=20090203&HanChk=Y

³ 한국 사회 최초의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1996-2009 잠시 영업 중단)도 그 이름을 바로 이 섬에서 가져 왔습니다.

⁴ 주한 외국인 레즈비언 및 양성애자 모임 <사포>의 이름도 이 시인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것입니다.

한편, 감정적,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동성에게도 이성에게도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 그 점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 관련하여서는 동성애자 안에서 성별에 따라 레즈비언이나 게이로 나누는 것과 같이 여남을 구분하여 가리키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자란 여러 가지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가 이성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이성애자 정체성은 동성애자 정체성이나 양성애자 정체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성별의 상대에게 이끌리는가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정체화’ 과정을 거치는 이들은 대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애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이끌림의 형태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성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누군가가 자신을 굳이 ‘이성애자’라고 ‘정체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이끌리느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일이 현저히 적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성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고정 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나, 무슨 계기를 통해서나 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생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굳이 탐색해 볼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 삶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처럼, 오래도록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새삼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정체성은 본인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하여,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코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폭넓게 조명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취하는 작업이 바로 정체화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현재 여성을 사랑하고 있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해도, 이성과의 경험과 동성과의 경험이 각각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비중이고,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 그녀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로도 양성애자로도 이성애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체화란 본인의 경험과 바람, 욕망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가에 달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용어 묶음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트랜스젠더 (transgender)

- ftm 트랜스젠더/트랜스남성
- mtf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Cf. 트랜스섹슈얼 (transsexual)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본인이 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즉, 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느냐 남성으로 인식하느냐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인식하느냐 등과 관련된 정체성인 것이지요.

흔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여겨지는 존재들은 사회적으로도 여성이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염색체, 호르몬, 성기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의 성(sex)을 할당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성역할 규범(성별 규범/젠더 규범)을 배우고 수행하도록 요구 받으며 살아갑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혹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은 그 당연해 보이는 성, 성별의 할당이 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존재들입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때 할당 받은 성/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 간에 괴리가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 받았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끼거나(mtf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남성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부여 받았지만 자신이 남성이라고 느끼거나(ftm 트랜스젠더/트랜스남성), 여성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지요. 트랜스섹슈얼은 그 중 성전환수술/성재지정수술/성확정수술을 거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트랜스젠더 및 트랜스섹슈얼 중에도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트랜스젠더란 성별을 매개로 고민되는 정체성이고 동성애자/양성애자/이성애자란 성적 지향을 매개로 고민되는 정체성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가령, 레즈비언은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라거나 게이는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라는 식의 생각이 흔한데 이는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잘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물이해의 한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규범적 성별 표현과 관습적 성역할이 여성 과 남성으로 하여금 각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강제되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이성애자여야 함이 당연히 전제되는 만큼,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의 경계는 불가피하게 헛갈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남성에게 끌려야 마땅하고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끌려야 마땅한 게 사회적 규범이라면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은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비(非)트랜스젠더 레즈비언과 ftm 트랜스젠더/트랜스남성 이성애자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비(非)트랜스젠더 게이와 mtf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이성애자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등도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 간의 불분명한 경계를 더욱 깊이 고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일부 비(非)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및 ftm 트랜스젠더/트랜스남성이 여성 신체의 특징과 생리 현상에 대해 보이는 불쾌감, 혐오, 반감이나, 수술하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의 이른바 ‘남성’ 성기에 대해 비(非)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 표출하는 불편한 심기 등은 동성애자 커뮤니티⁵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안팎을 가로지르는 몇 가지 첨예한 화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 세 번째 용어 묶음

이반 (異般/二般)

엘지비티 (LGBT)

퀴어 (queer)

성소수자 (sexual minority)⁶

이 각각의 용어들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정체성이나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기존의 성별 규범/젠더 규범 및 이성애주의를 벗어난 삶을 사는 이들을 포괄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마다의 용어가 강조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굳이 섬세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래저래 혼용되기도 하지요.

먼저 “이반”이라는 용어는 ‘일반’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한국의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 이러저러하다고 이야기되는 것들과는 다른 경험들을 그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과 대등하게 놓으면서, 차이를 부각하는 동시에 긍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반, 십대이반⁷, 기혼이반, 이반커뮤니티, 이반검열⁸ 등은 이 이반이라는 말의 다양한 용례를 보여줍니다. 이반은 포괄적인 용어로 인식

⁵ “커뮤니티”(community)는 ‘공동체’란 뜻의 영어 낱말로, 동성애자 커뮤니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등의 표현 속에서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매개로 교류하는 온/오프라인상의 특정 공간이나 모임 혹은 넓은 의미의 동성애자 사회, 트랜스젠더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⁶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1994년 단체 창립 이후 다음과 같이 명칭/위상 변경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마다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와 관련하여 열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1994)>→<한국여성이반커뮤니티센터 끼리끼리(2000)>→<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2001)>→<한국레즈비언상담소(2005)>

⁷ 한국의 십대이반들은 “땡”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자신과 다른 이반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⁸ 제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반학생들에 대한 단속, 처벌, 징계 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성영상집단 움>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인 “이반검열1”과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을 주로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엘지비티(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이 말은 젠더 규범이나 이성애주의 바깥의 존재들을 대충 “동성애자” 커뮤니티라고 지칭했을 때 묻혀버리기 쉬운 각각의 정체성들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더불어 정체성들간에 연대의 고리가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효과를 지닙니다. 각 정체성의 독자적, 분리적 운동을 지향하는 이들은 이런 식의 통칭이 고유한 억압 경험을 무화하는 측면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서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네 가지 머리글자의 조합인 LGBT에 퀴어(queer) 또는 정체성을 탐색 중이라는 뜻의 퀘스처닝(questioning)의 머리글자인 Q까지 덧붙여 LGBTQ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⁹

퀴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게이와 비교해서 이해할 경우 보다 뚜렷이 살아납니다.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도록 동성애자들을 밝고 바른 이미지로 표현하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 용어가 게이인 데 비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존재들이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자신들의 존재를 그 자체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지향점을 지닌 용어가 퀴어입니다. 이는 본디 “이상한, 기이한”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낱말로써 오랜 동안 동성애자 등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미국의 새로운 운동 흐름 속에서, 그간 경멸 당해 온 당사자들의 재의미화를 통해 오히려 적극적인 다름의 긍정, 도전적인 차이의 긍정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퀴어문화축제, 퀴어 영화 등의 용례 속에서 이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퀴어는 이렇게 정체성들을 묶어내는 포괄적 용어로도 쓰이지만, 그 자체로 (정체성 아닌) 정체성의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용례에는 이분법적으로 고정된 성별과 그러한 성별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성정체성들의 틀을 최대한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가 내포돼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은 겉보기처럼 이반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일반들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근거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닙니다. 이반들은 수적 소수여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주류적 위치, 다수자적 위치, 발언력 있는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장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늘 차별 받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입니다. 이는 다른 포괄적 용어들에 비해 주로 좀 더 공적인 문건이나 활동, 법 담론 안에서 사용되는 편입니다만, 언제 무슨 용어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 등에 대한 한국 사회 (성소수자 운동) 내부의 결정적 합의 같은 것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듯 합니다. 상황마다 간헐적으로 논쟁이 되기는 하지만요. 대표적인 용례로는 <성

⁹ 무성애자(asexual)와 간성(intersexual)의 머리글자인 A와 I까지 추가하여 LGBTAIQ와 같은 식으로 조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통칭 안에 어떤 정체성까지를 어떤 순서로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한 크고 작은 고민과 논쟁 역시 존재합니다.

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¹⁰이라는 연대체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3. 없는 데 없는 호모포비아(homophobia)

호모포비아란 한국말로 ‘동성애혐오,’ 또는 ‘동성애공포’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던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 사회악, 일탈 등으로 여기며 동성애자를 깔끄러워하고,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동성 간의 파트너십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분명 한국 내의 제도적 차별로서 제도의 근간에 자리한 호모포비아를 드러내 줍니다. 최근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신들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소마미술관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행사 개최를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일도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시설 이용 차별로, 단적인 호모포비아 사례이지요.¹¹ 그런데 이런 급의 사안만을 호모포비아라 일컫는 건 아닙니다. 호모포비아는 일상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우리는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우리’라 지칭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음을 짐작조차 못한다는 것 역시 호모포비아의 한 단면이지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나름의 지지적 발언에마저 무감각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격적인 의도 없이 내뱉어진 상대적으로 훌륭한 발언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법한 동성애자에게는 자신을 다시금 비가시화 하는 발언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당사자인 그녀 혹은 그는 선생님의 말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슬프고 화가 날지 모릅니다.

¹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누리집 <http://lgbtact.org/>

¹¹ “28일 오후 6시 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국내 커밍아웃 연예인 1호’ 홍석천 씨(39)와 함께하는 동성애자 인권 간담회가 열렸다. (중략) 미 대사관이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친구사이>를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과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시간 동안 홍 씨의 체험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됐는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이 행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달’로 정한 데 따라 마련됐다./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와 관련한 공개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주최 측은 장소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당초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열 예정으로 80여 개 매체에 보도자료를 보냈으나 이 미술관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5일 오후에 ‘장소 불허’를 통보한 것이다./미 대사관의 패트릭 리너한 공보참사관은 “공단 측이 ‘한국 정부기관으로서 이미지가 걱정된다. 한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의 눈/박희창]게이 작가展은 되고 강연은 안 되는 대관의 룰 (동아닷컴 2010-06-30)

출처 <http://news.donga.com/Column/Kija/3/040102/20100630/29507389/1>

노골적인 적대, 차별, 폭력만 호모포비아인 건 아니라는 점, 위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모포비아는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의 한 토막에도, 심지어 악의 없는 존중의 발언 속에도 깔려있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도 동성애자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차별 받는 게 가엾으니 도와줘야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대놓고 조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 동성애를 사악한 기운의 씨앗으로 보고 멸시를 아끼지 않는 태도 등은 얼핏 정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서로 일맥상통하는 호모포비아입니다.

그렇다면 호모포비아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성애주의일 겁니다. 이성애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옳고,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오랜 통념, 즉, 사랑, 교제, 성관계, 혼인은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묵은 관념, 바로 이와 같은 이성애주의가 ‘온전한’ 이성애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와 욕망들을 배제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 혐오, 비하, 차별 등을 아울러 트랜스포비아라고 일컫습니다.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는 서로 많이 겹치고 또 상당히 갈라지는 포비아들입니다. 분명한 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1) 일상 속의 호모포비아

-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이 보이는 동성애에 대한 반감, 적대감, 무지 등
- 길거리에서 가해지는 시선 폭력, 성추행, 욕설 등

2) 법제도 상의 호모포비아

-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¹²
- 동성간 성폭력의 죄질이 아무리 심각해도 최대 ‘강제추행’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 등
- 차별금지법 상 차별금지대상 목록에서 ‘성적지향’이 쉽게 빠져버리는 문제
- 균형법 상의 “계간” 처벌 조항 등¹³

¹² 상담소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에 결합하여 다른 여러 단체 및 개인 연구자, 활동가들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고민,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¹³ **군형법 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애초에 이러했던 상태에서 2009년 개정을 통해 오히려 해당 법정형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남성간 성행위를 닭과 같은 동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비하하고 있습니다.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법조항입니다.

- 남성간 성행위를 합의, 동의, 강압, 협박 등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범죄화 하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와 동성간의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편견을 양산해 내고, 동성간의 성폭력을 엄밀히 따져 처벌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3) 문화 속의 호모포비아

- 방송, 언론 매체 등에서 동성애자를 희화화하는 문제
-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문제 등

4) 교육상의 호모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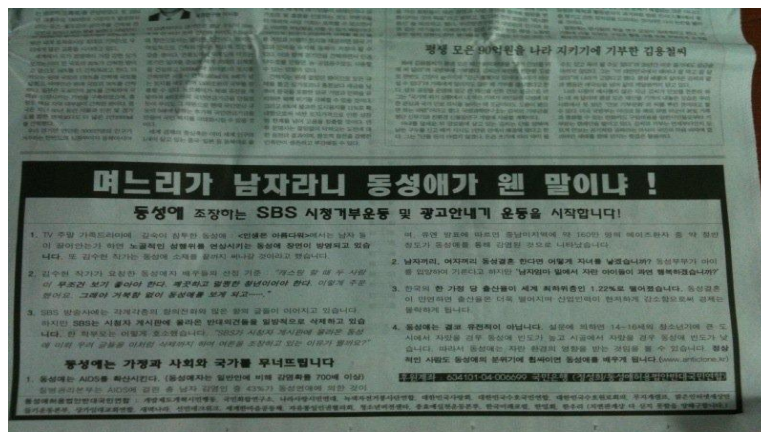
- 교과서에서 동성애자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편견을 담아 다루는 문제
- 십대들에게 가해지는 ‘이반검열’ 문제 등

5) 종교의 호모포비아

- 보수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反)동성애 행동
-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 생활하는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압력들, 폭언 폭행들 등

*예: 조선일보 2010년 5월 27일 하단 광고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나!”



(게이 커플이 등장하는 SBS 주말 연속극 “인생은 아름다워”에 항의하는 동성애 혐오성 광고입니다.)

호모포비아는 실로 없는 데가 없어서, 사회 전반이나 이성애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사람은 물론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한 사람에게도 내면화 되어 있기 십상이지요. 이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도 공기처럼 들이마셔지는 이성애주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동성애자들은 자신에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기 혐오와도 부딪쳐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긍정의 언어, 자존의 언어, 미래의 언어, 희망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누리집 (<http://www.gunivan.net/>)을 참조하시면 현재 관련 논의 및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를 마련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4. "원인 찾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지지하기

그럼 이제 아래 문장들을 한 번 훑어 봅시다. 가만 보면 대체로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이지요. 각각의 문장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맞다 싶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다 싶으면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들을 나누어 보아요.

- 동성애 경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다.
- 동성애 경향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다.
-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여성이 레즈비언이 된다.
-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여성이 레즈비언이 된다.
-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레즈비언이 된다.
-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이 게이가 된다.
-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레즈비언이 된다.
- 여중, 여고에 레즈비언이 많다.
- 동성 커플이 키운 아이는 동성애자가 된다.
- 남들보다 성욕이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가 된다.
- 검지가 약지보다 길면 동성애자다.
- 동성애자들은 사귄 때 여/남 역할 구분을 한다.
- 동성의 상대와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성애자가 될 수 없다.
- 이성의 상대와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
- 십대 때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깝다.

마구 헛갈림이 몰려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구체적인 자기 이야기, 한 명 한 명의 정체화 서사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과 몇 가지 사례를 모두의 경험으로 일반화 해 버리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혼란 속에서 균형을 잡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위 문장들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반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반례가 존재한다는 건 곧 위와 같은 일반화가 성급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잘못되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어가지만 짚어 볼까요?

우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로라면 (가령 동성 커플이 기르는 아이는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치면) 이성애 커플이 기른 아이들이 동성애자일 수는 없는 것인데, 무수한 동

성애자들이 양친 슬하에서 자라(났음에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합니다. 다른 한편, 이걸 유전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매형제들의 성정체성이 실로 다양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¹⁴ 또한 여중, 여고에 다닌 이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곳에 남자 없음에 한탄을 아끼지 않으며 남자들 많은 곳에서 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여중, 여고 자체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이렇고 저래서 생긴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일반화 하는 작업은 부질없기가 그지 없습니다. 실은 애초에 동성애의 원인을 찾겠다는 발상부터가 불순한 것이지요. 그런 태도에는 어떻게든 원인을 밝혀 동성애를 예방, 치료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셈이니까요. 동성애가 그 자체로 소중한 감정이자 욕망 그리고 관계의 형태로서 존중 받아 마땅하다면, 그것의 원인을 밝히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여러 겹의 편견을 들추고 비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이 세상을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한결 나은 태도일 것입니다.

원래 나빠서 나쁜 건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리켜 그건 '원래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무언가는 '원래 나쁜 것'으로 만들어질 뿐, 진짜 원래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월경이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월경을 축복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손잡이를 교정 대상으로 간주했던 오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원손잡이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원손잡이 용 편의 용품을 개발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흑인은 원래 열등하다고들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판 받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그 자체가 원래 비정상이고, 원래 이상하고,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것으로 포장해 온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긴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상 사람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 및 이성의 상대에게 끌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합니다. 워낙 이성애주의에 질게 물든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다 보니 동성의 상대를 향한 이끌림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기회를 미처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많을 뿐이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이런 억지

¹⁴ 게이 커플의 사랑과 이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모저모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주말연속극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 타고 태어나는 것, 유전자 속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은 식으로 거듭 표현함으로써, 행복하게 이 연속극을 시청하는 동성애자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줍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정하라,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거니까 인정하라, 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지닙니다. 먼저, 타고 태어났다 운운은 동성애자로서의 삶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며, “선택”되는 것일 수 있어야만 하는 측면을 무화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식의 설명은 이성애만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배제하고 억압해 온 기존의 인식들을 고스란히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성애를 다시금 함정에 가둡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보다도, 자연스럽다는 것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에 있다고 보아야 할 터입니다. 이는 특별히 문제 있는 존재만이 동성애자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성애자일 수 있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성애의 원인을 찾는 (그럼으로써 동성애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특정한 일반화 방식들이 문제인 것과 별개로,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화 계기를 본인의 언어로 풀어 놓을 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레즈비언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중 다니면서 서로 사귀고 이러는 친구들 보면서 아,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아" 등), 그러한 자기 진술에 대해 "그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성급한 일반화예요!"라는 식으로 비판해서는 곤란합니다. 개인이 자기 경험을 성찰하며 해석해 온 과정은 그것 그대로 그녀 혹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어떤 계기를 거쳐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지 잣대를 들이대어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5. 커밍아웃 (coming out of the closet) (그리고 아웃팅 outing)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안 불편할 수 있는데)

"굳이 드러내는 이유가 뭐가요?"

"커밍아웃, 꼭 해야 하나요?"

(스스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굳이 숨기는 이유가 뭐가요?"

"커밍아웃을 그토록 주저하는 이유가 뭐가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양성애자입니다,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요, 나는 여자인데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요, 나는 딸로 길러졌지만 아무래도 스스로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기존의 젠더 규범과 이성애주의를 거스르는, 그래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성별정체성을 타인에게 직접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자금 커밍아웃, 학력위조 커밍아웃 등 커밍아웃이란 말이 성소수자들의 드러내기에만 국한되어 쓰이지 않은지 벌써 꽤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이들이 자신의 과오 혹은 치부를 드러내는 맥락에서마저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쓰이다 보니, 부당하게 비가시화되었던 존재들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자신을 드러내는 용감한 실천으로서의 커밍아웃 본래의 뜻이 희석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성별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이성애자이리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관습적 통념, 여성성과 남성성의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듯 보이는 존재들을 그저 이상 사례로만 여기고 마는 감수성 부족 등이 이러한 성소수자 비가시성의 근거입니다.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질적 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어딘가에 정말 숨어 길거리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비가시화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곳곳에서 스쳐 지나가고 관계 맺으면서도 미처 알지 못한다는 차원에서의 비가시성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에게 타인들과 보다 전면적으로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인 성정체성/성별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이제까지 일상의 무수히 평범한 대화들 속 늘어가만 가던 거짓말 더미를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길 때의 꾸며진 정체성과 내적인 정체감 사이의 괴리를 겪는, 엄청난 분열적 삶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며 느끼던 고독으로부터 차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하면 주변의 모두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이 불필요한 불편일지, 부당한 불편일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불편일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에게 가해질 정죄와 낙인을 예상하는 가운데 그나마 조금은 이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커밍아웃 합니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기가 정체화 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없다는 측면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커밍아웃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상황 자체, 그 상황 자체가 애초에 불편하고 차별적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채 숨기고 지낸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이 당사자만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커밍아웃을 하면, 당사자나 그 커밍아웃을 접한 이들이 더불어 그 애초의 부당한 상황을 점검하고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낯설음과 두려움을 나누어 가지고 왜 그런 느낌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펴 볼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꾸준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자신의 정체성을 매개로 지인들과 더 진솔하게 소통하고 싶은 바람에서입니다. 우리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자 되기 위해 굳이 더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아웃팅은 성소수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 이후 자신에게 부딪쳐 올 여러 힘겨운 상황들(관계의 단절, 학교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혐오범죄 피해 등)을 미리 가늠해 보면서 커밍아웃을 준비하고 결행합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들에게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커밍아웃을 준비할 시간도 방법도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아웃팅은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대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커밍아웃할 기회를 갖아가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타인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 버리는 건 성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갈 소중한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 "@@씨는 남자친구 없어요?"

- "..... 애인은 있는데."

- "남자친구하고 애인이 뭐 다른가?"

- "..... 여자니까, 애인이."

- "..... 아, 그럼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남자친구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구나."

- "그렇죠, 그나저나, 이거 ##씨에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씨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 "에이 알았어요. 말 안 할게요."

6. 내담 사례: 여성 이반과 가족/지인의 관계 맺기

* 당사자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애인하고 문자 한 내용 들켰는데, 부모님이 내일 당장 정신과 데려간대요. 어떻게 하죠?"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이런 자식이라는 게 어머니를 더 안 좋게 할까 봐 겁이 나요."

"동생이 저더러 언니만 우리 집에서 멀쩡하면 모두가 화목할 거라면서 화를 내며 울어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시킬 작정이시라네요."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식구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괴롭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기혼자예요. 죄스럽고 미안해서 사랑을 하면서도 마냥 행복하지가 않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 자매형제의 내담

"동생이 여자를 사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니로서 이걸 부모님에게 알려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제 동생 일기장을 우연히 봤어요. 동성교제를 하고 있네요. 제가 안 이 시점에 어떻게든 막

아서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폭력이 심한 집안이었습니다. 동생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 이렇게 된 건 아닐지 언니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착한 동생입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고쳐 줄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체 내 동생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건지.....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 부모의 내담

"내 잘못된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임신 중에 뭔가 실수를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괴롭습니다."

"딸아이가 여성스러운 것이라고는 질색합니다. 남자같이 하고 다녀요.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인기도 꽤 많은 모양이고요. 자기도 그게 싫지 않은 것 같고. 크면 나아질까요?"

"친구랑 같이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간 딸이 친구와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인데, 앞으로 미래에 동성애자로 살면서 인생 망칠 수는 없지 않나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이를 고쳐 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겠지요. 정신과 치료든, 심리 상담이든 뭐든 추천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서는 자해를 일삼습니다. 그냥 여자 좋아하면서 살게 자기 좀 내버려두라고 발악을 합니다. 부모로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크면서도 다 커서도 제 앞가림 잘 하는 아이라 든든한 자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라니요..... 단란한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레즈비언이라니 믿을 수가 없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냥 지지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로 풀든 뭘 하든 애 마음을 좀 돌려 봐야 하는 건지."

* 지인 내담

"제가 아끼는 동성 친구가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연애 감정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거절해야 하는 마당인데, 그렇게 하면 이 친구에게 제가 큰 상처를 주게 될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여 활동하는 모임 안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둘이 실은 자기들이 커플이라고 제게 털어 놓았습니다. 저 자신은 크게 편견이 없어 어려움 없이 이 친구들과 그 뒤로도 잘 지내요. 그런데 모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여자친구가 과거에 여자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고 물어 보면 지금은 저를 사귀니 레즈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장난으로 여자들을 만났던 거 같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여자에게 가기 위해 저를 떠날까 봐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알고 보니 레즈비언입니다. 제가 그녀를 좋아해서라기 보다 동성애

자로 사는 건 쉽지 않고 힘든 게 분명하기에 될 수 있으면 누나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돕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7. 내담 사례: 십대 여성 이반

*십대 여성 이반 당사자 내담

“저 벌써 열 여덟 살이고 곧 대학도 가야 하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뭔지. 남자가 특별히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더 좋은 것도 확실한 거 같아요. 스무 살 되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 답답해요. 어떻게든 빨리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개도 내가 좋은 거 같은데, 제가 고백하려고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하면 어쩐지 눈치채고 저한테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냥 친구로만 지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감정이 우정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정말이지 남자가 너무 싫어요. 아빠가 엄마와 저를 무지하게 때려서 그런지, 옛날에 제가 사촌오빠에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남자들이랑은 가까이 있기도 싫어요. 그래서 연애감정도 여자한테 드나 봐요. 그런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몰라서 불안해요. 남자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기 싫은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숨기고 살아야 하나 싶고요. 어른 되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면 너무 슬플 것 같고요.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고백도 못하고, 그런 거 힘드니까 다른 일에 집중도 못하고,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죽는 생각만 해요.”

“꼭 레즈비언, 바이, 이런 거 정해야 하나요? 저는 개가 그냥 좋은 거지 개가 여자라서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베프도 아니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멀리서라도 보면 좋고, 부끄럽고 그래요. 말해보고 싶고, 놀러 가자고 하고 싶고, 공부하다 보면 얼굴 아픈거리고. 다른 애들은 연예인도 남자들 좋아하고, 남고 오빠들 쫓아다니는데 저는 왜 이러지요?”

“애인하고 키스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입만 맞추고 가만히 있자니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머리 자르는 거, 바지 입는 거, 다 이반이라고 혐의 두는 것 같아요. 불쾌해요.”

“학교에서 이반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찍혔는데, 선생님이 집에다 전화했어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저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채팅으로 알게 된 언니가 한 번 만나자 그래서 선뜻 그러자고 했는데 막상 약속 날짜 다가와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보니 상대가 남자였어요. 어른이요. 모텔로 나오래요. 안 나오면 개학 날 학교로 찾아 와서 저 이반인 거 소문 퍼뜨린대요. 집 앞까지 막 오려고 해요. 무서워요.”

"같이 다니는 애들 이름을 막 적어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떼어 놓으려고 전학 보내고."

*교사 내담

"학생 정체성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트러블이 심한 것 같은데, 연계해 줄 만한 상담소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하다가 학생이 동성교제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 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하는 걸 보니까 되도록 동성애를 안 하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이들 동성애 성향 진단해 볼 수 있는 검사지 같은 거 없나요. 그런 게 있어야 객관적으로 얘기도 해 주고, 조치도 취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편견없는 정보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도, 애들 눈치, 학부형 눈치, 교장/교감 눈치 등이 보이니 입바른 소리를 하며 인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터활동가)

"이반 아이들이 공동 생활 공간에서 성적인 접촉을 자꾸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불편해 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감이 안 옵니다."

"그룹홈 같은 데 지원하려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기재해야 하는데, 거기 이반이라는 걸 쓰면 입주 선정이 안 되기가 일쑤지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단기 쉽터를 전전하며 지내게 되곤 하고요."

(cf.

"예비교사입니다. 레즈비언이고요. 제 정체성 때문에 제가 과연 교직에 몸담아도 될 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도교육 현장이라는 곳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고루한 곳이기도 하거니와, 저 자신 스스로 동성애자로서 교육자 노릇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진로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심각하게 합니다만, 이제까지 준비해 온 시간이 있고 들인 공이 있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네요."

"저는 지레 겁먹고는 해요. 내가 이반이다 보니까, 그런 화제가 아이들 사이에서 나오면, 굳이 커밍아웃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도 있는 건데 못 그러거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먼저 걱정 되니까요."

"가끔 말 한 마디라도 더 붙여보고 싶은 웬지 이반일 듯한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두려워서 그렇겠지요.")

[자료 2] 소설 속 관계맺기 들여다 보기

1. 「루나」, 줄리 앤 피터스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트랜스젠더, 여동생, 부담감, 절친한 친구, 배신감

내가 현관에 나갔을 때 알리는 차를 뒤로 빼 나가려던 참이었다. 기다려달라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지만 알리의 시선은 백미러에 못 박혀 있었다. “언니, 멈춰!” 내가 고함쳤다. 손으로 알리 차의 앞 유리를 두드렸다.

알리의 4러너가 급정지했다. 내가 창문을 내려달라고 손짓했다. 시간이 좀 걸렸다.

“언니, 그녀한테 이러지 마. 그녀에겐 언니가 필요해.”

알리가 나를 응시했다. 나를 꿰뚫었다. “그녀한테 이러지 말라고?”

“언니, 받아들이기 힘든 줄 알아.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지. 익숙해질 거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알리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스며 나왔다. “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어.”

“친구야. 언니.....”

알리의 매서운 눈초리가 나를 뺨속까지 찔렀다. 눈물이 났다.

알리가 가속페달을 밟자 차가 킁 소리를 내며 차도로 달려 나갔다. 남겨진 내게 먼지를 흩뿌리며 텅여 나간 타이어에서 모래와 소금이 튀어 올랐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까지도 나는 내가 알리를 배신한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알리에게 말해줬어야 했을까? 내가 우리 우정을 배신한 걸까? 알리가 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일까? 거의 밤새도록 이 문제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알리가 그녀를 내팽개쳤을 때 루나의 얼굴에 서린 표정이란.....

오빠한테 경고했잖아? 알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아직은, 결코.

(중략) 어쩌면 내가 더 쉽게 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알리가 받을 충격을 덜어주거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킬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알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몇 가지

힌트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알리도 어찌면.....

“어찌면 뭘?” 나는 소리 내어 반문했다. “평생 사랑했던 남자가 실은 여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런 상황에 누가 대처할 수 있겠어?

대체 왜 알리는 직접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대체 왜 오빠는 알리가 친구 이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 친구 이상이 되고 싫어한다는 것을? 어찌면 오빠는 알았는지도 모른다.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알리한테 말해. 그러면 되잖아. 나한테 떠넘기지 마. 늘 나한테 떠넘기지 말아줘.

(pp. 257-59)

2.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낸시 가든 ①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레즈비언, 커밍아웃, 아웃팅, 엄마, 거짓말, 진실

차마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아침 내내 프롬나드 산책로를 걷다가 들어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울고 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반갑게 맞아 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안아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아 주었다. 내가 소파에 앉자 엄마가 비로소 말했다.

“애야, 아가.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엄마를 믿어 봐.”

내가 엄마 무릎을 베자,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는 내 턱을 살며시 들어 올리고 말했다.

“리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생겼을 때 기분이 어떤지 알아. 엄마도 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랬거든. 개 이름은 준이었어. 나는 스스로에게 주의를 줘야 할 정도로 그 애를 자주 쳐다보곤 했지.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애니와 너처럼 말이야. 어느 날 밤.....”

엄마는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준과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됐지. 준이네 집에서. 우리는 서로 키스했단다. 얼마 동안 우리 중 한 명이 남자인 척했어. 어느 순간 그게 우스워 보여서 그만두었지. 애야, 많은 여자 애들이 그래. 남자 애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남자 애들이 여자 애들보다 더 많이 그럴 거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만일, 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너는 벌써 다 자랐으니까, 엄마가 말해 주고 싶은 건, 그 느낌, 성적인 느낌은 여러 가지 감정과 섞여 있는 거야. 그 나이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시험해 보는 것도 정상.....”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비록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엄마는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에게서 빠져 나와 욕실로 뛰어갔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고, 끼얹고, 또 끼얹었다. 나는 생각하려고 애썼다.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무지 애썼다. 하지만 오로지 한 단어만 떠오를 뿐이었다. 애니.

내가 다시 거실로 갔을 때, 엄마는 창 밖에 있는 은행나무에 새로 돌아나는 잎을 보고 있었

다.

"저기 좀 봐라."

엄마가 나뭇가지 위로 날아다니는 작은 새를 가리켰다.

"집을 짓고 있나 봐."

엄마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리자,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 줬으면 좋겠구나. 내용을 캐려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너도 알겠지만 이걸 매우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거짓으로는 싸울 수가 없잖니. 이제, 애니와 네가 한 도가 지나친 일, 실험 삼아 해 본 일을 얘기해 주겠니? 표현이 별로라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 너희 둘 사이에 더 심각한 어떤 일이 있었니? 준과 엄마가 했던 것보다 더한 것 말이다."

엄마의 눈은 우울해 보였다. 그 안에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 만큼의 사랑도 들어 있었다. 나는 당당할 수가 없었다. 변명을 하지도 못했다. 결국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 엄마. 없었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엄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지나갔다. 평소에는 엄마가 늙었는지 몰랐는데, 다시 보니 엄마도 꽤 늙어 보였다. 엄마는 이제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았다.

"자,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자. 그리고 왜 백스터 선생님과 셸리가 오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엄마가 내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다.

바로 그 때 아빠가 들어왔다. 다행이었다. 나는 엄마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저 마음 속으로 계속 되뇌기만 했다.

너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 생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pp. 251-54)

3.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낸시 가든 ②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레즈비언, 동생, 지지(자), 낙인, 두려움, 당당함

애니에게 전화를 건 후, 스티븐스 선생님과 위드머 선생님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 일요일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집에 가 볼까 했지만 애니는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곳에 가는 것을 다른 사람, 특히 백스터 선생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월요일은 정말 더웠다. 여름같이 더운 날이었다. 하지만 채드와 함께 학교에 가는 동안 내가 흘린 땀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걷고 싶었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따로 가고 싶으면 말해. 난 괜찮아."

내가 채드에게 말했다.

“미쳤어?”

채드가 대답했다. 오히려 나를 위해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고는 우리를 보고 킬킬거리는 아이들을 심하게 노려보았다.

“행운을 빌어, 누나. 필요하면 소리질러. 내가 주먹을 날려 줄 테니까.”

채드가 속삭였다.

채드가 창피해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복도에서 채드를 껴안았다.

(pp. 292-93)

4. 「어쩌면 우리는」, M.E. 커 (『엠 아이 블루』에 실린 단편 중 하나)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레즈비언, 커밍아웃, 할머니, 엄마, 가족, 현재진행형, 계속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다음에 계속.....’

할머니도 알고, 엄마도 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께서 아신다는 걸 엄마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커밍아웃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남남이 서로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특히 그 남남이 가족이라면.

(p. 46)

5. 「학부모의 밤」, 낸시 가든 (『엠 아이 블루』에 실린 단편 중 하나)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레즈비언, 아빠, 엄마, 딸, 사랑, 낯섦, 긴장, 노력, 받아들이기

아빠는 당혹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 못지않게 긴장한 모습이였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없나 확인하려는 듯이 강당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힘겨운 듯 엄마를 쳐다보았고, 엄마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러자 아빠는 허리를 숙여 머리를 반쯤 부스 안으로 넣더니 나에게 뽀뽀를 했다. 그러고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노란 장미를 건넸다.

“우리 꼬맹이 생일 축하한다. 이번엔 조금 늦었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마. 익숙해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넌 여전히 내 딸이니까. 아빠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거라.”

아빠가 웃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웃은 것만은 분명했다. 난 꿈쩍도 할 수 없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부스를 눈물 바다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빠는 어색한 자세로 록시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렵게 말을 붙였다.

“네가 우리 캐런이랑 서로 아껴주는 사이라니 좋구나.”

아빠는 부스를 둘러보다가 목록과 에이즈 팸플릿 몇 장을 주섬주섬 집어서 엄마에게 건넸다.

그리고 나한테 윙크를 하더니 엄마와 함께 다음 부스로 걸어갔다.

(pp. 190-91)

6. 『두 엄마』, 무리엘 비야누에바 페라르나우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레즈비언 엄마들,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 학교, 당사자 가족으로서의 커밍아웃, 낙인, 두려움

“마리아 엄마, 엄마가 와줘.”

“못 가는 거 알잖아.”

마리아는 문 열린 냉장고 앞에서 장을 봐온 물건들을 꺼내며 대답했다.

“왜?”

“학교 아이들이랑 캠프에 가야 한다고 전에 얘기했잖아.”

“안 가면 안 돼?”

“캠프에? 아니면 학부모 면담에?”

“캠프에.”

“당연히 안 되지! 자, 거기서 쳐다보고 있지만 말고 와서 좀 도와주렴.”

“알았어.”

카를라는 곧바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거 알잖니. 게다가 우리 집이 학교에서 더 가깝고, 누리아가 갈 수 있잖아. 이제 그만 하자.”

“그러면 면담 날짜를 바꿀 수는 없을까? 내일이 좋으면 네우스 선생님께 말씀드려볼.....”

“안 돼, 카를라. 답답하게 굴지 마. 게다가.....”

마리아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게다가 누리아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 순간 누리아가 부엌으로 들어왔고, 카를라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창피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둘이서 얘기해봐.”

마리아는 모르는 척했다.

“에구, 우리 예쁜 딸. 엄마로서 학교에 가다니 꿈만 같구나.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니.....”

누리아가 카를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도 딸 자랑 좀 해봐야지. 그 동안 모든 영광은 늘 마리아 차지였는데.”

그러고는 화난 척 마리아를 가리켰다.

“그럼 친구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죽어요.”

(pp. 106-7)

7. 『형제』, 테드 반 리스하우트

이 대목을 보는 데 유용한 열쇠말: 게이, 침대, 엄마, 아빠, 커밍아웃

난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어.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테니까. 다시 말을 꺼냈어. 살아생전에 내 입 밖으로 내놓은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내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은 월슨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내가 여자 애들보다 남자 애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말을 다 쏟아냈어. 그 말을 다 해 버렸어. 내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 폭풍이 몰려오는지, 아니면 네가 하늘에서 내게 소식을 전해 주고 싶어서 보낸 사절이 오는지 보기 위해서였어. 하늘엔 구름이 흐르고 있었어. 네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불 속을 바라보았어.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구나", 꽤 답답한 어조로 말했어. "엄마는 네가 그러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그런 일이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오는 건 아니잖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황해서 물었어. "내가 '그렇다'니?"

"그 소린 들었잖아." 엄마가 말했어.

엄마는 난로 부지깽이로 모닥불을 뒤적였어.

"우리 외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우린 나쁜 부모였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탄식 가운데 가장 깊은 탄식이었어.

"애, 우린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난 속이 부글거리며, 끓어올랐어. 전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속이 상하고, 기쁘고, 어리둥절하고, 고맙고, 분노가 치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어. 예상했던 폭풍이 하늘에서는 오지 않고,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왔어. 난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난 전혀 행복하지 않아. 문제는 내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말했어. "네 아빠나 나의 행복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어. 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만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소리쳤어. "엄마 아빠는 내게서 손자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애, 그러면 우린 개를 한 마리 들여놓을 거야." 엄마가 가볍게 말했어. "네 아빠가 좋아한다면 고양이를 한 마리 들여놓아도 되고."

다시 불을 쭈석거리면서 엄마가 내게 잠깐 눈길을 주며 말했어.

"누구나 손자를 원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럴 권리는 없어."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 두개골 안에서 뇌수가 빙빙 돌고 있었어. 머릿속 깊은 곳에서 고통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또 그 이유도 알았고.”

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지켜보고만 있었어.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제 그만 진정해.” 엄마가 다그쳤어. “물론 우리도 그걸 확신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그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었어.”

그런 다음 엄마는 내게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듯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아직 넌 어려.”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아주 흔한 말로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 것을 일컫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줄 수도 있었을 거야. 안 그래?”

아랫입술이 떨리더라. 그래서 입술을 깨물었어.

“이젠 네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엄마가 말했어. “네 아빠와 난 당연히 네가 이성을 좋아하길 바랐어.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더 현명했더라면, 한번쯤은 무슨 말을 해 주었을 텐데 하는.....”

(pp. 184-88)

[자료 3] 더불어 보면 좋을 자료들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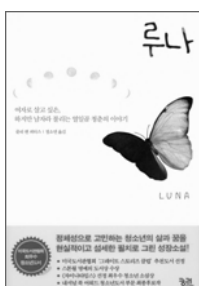
<앰 아이 블루>, 메리언 테인 바우어 지음, 낭기열라, 2005년, 8500원
동성애자가 주인공이거나 동성애자를 친구나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등장하는 단편 13편이 담긴 청소년 소설 모음집.



<아쿠아마린>, 캐럴 앤서 지음, 민음IN, 2006년, 10000원
레즈비언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미국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킨 레즈비언 문학 대표 소설.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그녀의 인생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



<두 엄마>, 무리엘 비야누에바 페라르나우 지음, 낭기열라, 2008년, 8000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엄마 두 명과 입양한 동생을 가지고 있는 소녀의 자전적 소설.



<루나>, 줄리 앤 피터스 지음, 궁리, 2010년, 12000원
열여섯 레이건에게는 '루나'라는 이름을 택한 트랜스젠더 형제 리엄이 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레이건 뿐이다. 성소수자의 가족이 겪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



<형제>, 테드 반 리스하우트 지음, 양철북, 2003년, 8000원

동생의 죽음, 성 정체성, 학교에서의 괴롭힘, 가족에의 커밍아웃 등의 문제를 다룬 십대 소설.



<나나누나> 김비 지음, 해울, 2006년, 9500원

커밍아웃한 MTF 트랜스젠더 인권운동활동가이자 작가 김비의 첫 소설집.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낸시 가든 지음, 보물창고, 2007년, 9800원

한국의 현재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은 미국의 60년대를 배경으로 두 소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다룬 청소년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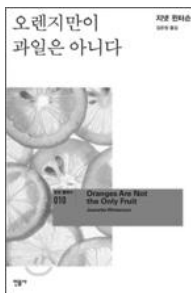
<재미난 집 - 어느 가족의 기묘한 이야기>, 앨리슨 벡델 지음, 글논그림발, 2008년, 11000원

레즈비언인 저자가 게이인 아버지를 회고하는 만화. 결혼한 게이 남성의 삶과 딸의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엄마의 집>, 전경린 지음, 열림원, 2007년,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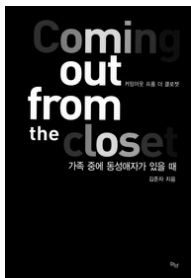
엄마와 딸이 '집'을 포함해 소소한 기쁨과 상처, 사랑, 그리고 불굴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 화자인 딸이 스무 살 레즈비언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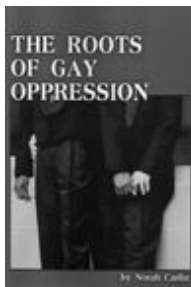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지넷 윈터슨 지음, 민음사, 2009년, 11000원
한 소녀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깨닫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 주인공과 보수적인 기독교도 부모님과의 갈등도 다루고 있다.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다니엘 A. 헬미니악 지음, 해울, 2003년, 12000원
성서는 과연 정말로 동성애를 금기시하고 있을까? 성서 연구를 통해 성서는 실제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낸 책.



<커밍아웃 프롬 더 클로젯>, 김준자 지음, 화남출판사, 2010년, 10000원
성소수자의 사연을 모아 엮은 책. 성적체성을 발견하게 된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커밍아웃을 받아들인 가족들의 반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 지음, 책갈피, 1995년, 4300원
동성애를 개인의 선택이나 성적 취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관계' 속에서 모색한 책. 동성애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된 것임을 밝혀낸다.



<나> 이경화 지음, 바람의 아이들, 2006년, 8000원
故육우당을 기리는 소설. 자신의 정체성과 변화하는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 게이에 대한 이야기.

자료집

<내 혼은 꽃비 되어> 故육우당 지음, 동성애자인권연대, 2006년

2003년 자살한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의 추모집. 육우당의 시조, 일기, 편지 등이 담겨 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 풀어보는 59 가지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지음, 2007년

이성애가 정상인 건 맞지 않나요? 어릴 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등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자료집.

<한국에서 성적소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음, 2007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2007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가족들을 위한 포럼'의 자료집.

<커밍아웃 가이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지음, 2007년

친구, 형제 자매, 부모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북.

<트랜스젠더 커밍아웃 가이드북>, <3xFTM> 상영 기획단 외 지음, 2009년

다큐멘터리 <3xFTM> 소개글 및 트랜스젠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실려있는 가이드북.

<성적소수자에 관한 학교 인권교육의 가능성과 대안>,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음, 2005년

학교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

<한국 지금 퀴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음, 2004년

현장 경험과 해외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는 자료집.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37가지 질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음, 2007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님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37가지 대표적인 질문들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집. 자녀가 처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았을 때의 부모님들의 심정이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알

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영화



<쇼 미 러브 (Fucking Amal)>, 루카스 무디슨 감독, 1998 년, 89 분

소녀들끼리의 갈망과 사랑, 기쁨 등 성장의 코믹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색다르게 그린 청소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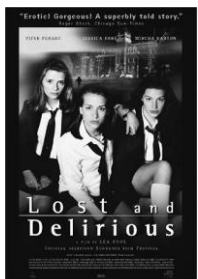
<더 월 2 – If These Walls Could Talk>, 앤 헤이시, 마샤 쿨리지, 제인 앤더슨 감독, 2000 년, 96 분

동성애 커플의 법적 보호, 임신과 출산 등의 문제를 다룬 유니버스 식 영화.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인걸 (But I'm a Cheerleader)>, 제이미 바빗 감독, 1999 년, 81 분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의심하는 부모들에 의해 동성애 치료 특수캠프에 보내지는 10 대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쾌한 풍자 코미디 영화.



<상실의 시대 (Lost and Delirious)>, 레아 폴 감독, 2001 년, 103 분

사춘기를 맞이한 세 소녀의 첫사랑과 성적인 열정에 대한 발견, 그리고 정체성 찾기에 대한 영화. 2001 년 서울국제영화제 상영작.



<여고괴담 2 – Memento Mori>, 김태용, 민규동 감독, 1999 년, 98 분

한 여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을 근거로 한 소녀의 자살과 그 죽음의 단서를 통해 두 여고생 사이의 사랑을 그린 영화.



<나비 (Wu Die)>, 안 안 막 감독, 2004 년, 124 분

한 여인의 사랑, 동성애, 정체성과 대면하는 이야기.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다른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성의 삶을 미묘한 스타일로 다루고 있는 영화.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다니엘라 페허만 감독, 2002 년, 96 분

엄마가 스무살이나 어린 여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세 딸이 혼란을 겪는 과정을 통해 동성애와 가족, 결혼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두 소녀의 놀라운 모험 (Two Girls in Love)>, 마리아 매겐티 감독, 1995 년, 94 분

학교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는 소녀와 교양 있는 부잣집 소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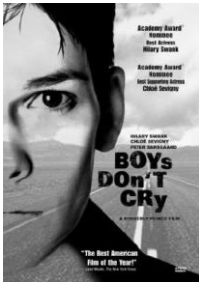
<사랑하는 애너벨 (Loving Annabelle)>, 캐서린 브룩스 감독, 2006 년, 77 분

카톨릭 여자고등학교에서의 여선생과 여학생간의 사랑에 대한 논쟁적인 이야기.



<트랜스 아메리카>, 던컨 터커 감독, 2005 년, 103 분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앞둔 아빠와 문제아 아들이 함께하는 좌충우돌 미국 횡단 여행기.



<소년은 울지 않는다>, 킴벌리 피어스 감독, 1999 년, 116 분

실제 티나 브랜든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남장'을 한 주인공이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사랑, 혐오범죄 등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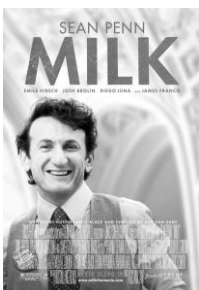
<천하장사 마돈나>, 이해영, 이해준 감독, 2006 년, 116 분

여자가 되고 싶은 소년이 성전환수술비를 위해 상금이 걸린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



<세이빙 페이스 (Saving Face)>, 앨리스 우 감독, 2004 년, 91 분

문화적인 관습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영화.



<밀크>, 구스 반 산트 감독, 2010 년, 128 분

70 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인권운동가이자 정치가였으며 지금까지 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된 실존 인물, 하비 밀크의 이야기.



<세 번째 시선 - Bomb! Bomb! Bomb!>, 김선, 김곡 감독, 2006 년, 106 분

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는 소년의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이반검열>, 이영 감독, 2005 년, 27 분

레즈비언인 것이 노출된 십대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인권침해를 담은 다큐멘터리.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 OUT>, 여성영상집단 움 감독, 2007 년, 110 분

성정체성을 고민 중인 세 명의 십대 레즈비언들이 셀프 카메라로 직접 찍은 세 편의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3XFTM>, 김일란 감독, 2008 년, 115 분

언뜻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성전환 남성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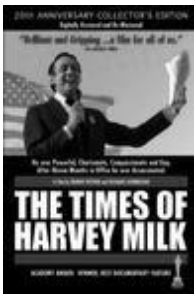
<커밍아웃 여행>, 사포 감독, 2009 년, 20 분

엄마와 함께 간 여행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MBC 뉴스 후 163 화 - 낯선 사랑, 동성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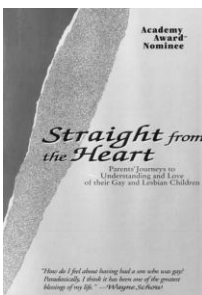
<하비 밀크의 시간들>, 롭 앱스타인 감독, 1984 년, 90 분

영화 <밀크>의 기초가 된 다큐멘터리 영화. 실존 인물 하비 밀크의 생애를 다루었다.



<브랜드 티나 이야기>, 수잔 무스카, 그레타 올랍스토티 감독, 1997 년, 90 분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진심으로 (Straight From the Heart)>, 디 모스마처 감독, 1994 년, 24 분

레즈비언 혹은 게이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춘기 (Puberty)> 윤재상 감독, 2008년, 16분

보건 교사인 어머니는 아들이 동성애자일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데...

이미지 출처 <http://www.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4147>

2010 여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대상별 맞춤 강좌

내 결의 레즈비언과 지지적 관계 맺기

- 여성이반의 가족/지인 및 현직교사/예비교사 대상 맞춤 강좌

(*이반異般: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아울러 가리키는 한국의 자생적 용어입니다.)

사춘기 딸이 아무래도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신 어머니, 결혼적령기를 넘기고도 결혼할 생각을 않는 여동생이 걱정이신 언니/오빠, 어머니의 소중한 그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운 자녀 분,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언니/누나가 창피한 동생, 죽마고우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친구 분, 거기 계신가요? 속상하시죠?

선생님 분들,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없는 정보를 제공해도 괜찮을지 고민되세요? 십대 이반들이 대체 무얼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고 싶으신가요? 여교사이신데 남자같은 여자 제자로부터 고백을 받으셨다고요?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이반 학생들을 단속하느라 분주하진 않은지요? 예비교사 분들, 소문으로만 듣던 십대 이반 "문제" 혼자 아무리 고민해 봐도 교생 실습 나가보니 그저 어렵기만 하던가요? 막막하시죠?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전 연령대 여성이반의 가족/지인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십대여성이반들과 만나게 되는 현직교사/예비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각각 총 다섯 시간의 맞춤 강좌를 엮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평소의 궁금증을 푸는 기초 강의,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상담 사례 나눔, 머리보다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는 관련 영상물 상영 등으로 알차게 구성된 강좌입니다.

동성애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내 가까운 존재의 이야기로 고민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뜨겁게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여럿이 같이 고민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 여성이반의 가족/지인 맞춤 강좌

"두려움, 당혹, 걱정, 슬픔, 배신을 넘어 관계맺기"

대상: 여성이반인 딸, 자매, 조카, 아내, 어머니, 친구와의 관계맺기를 고민하는 가족/지인들 (선착순 20명)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의 고민을 나누는 일, 특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의 이반 정체성을

둘러싼 고민을 타인들과 나누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사자만큼이나 낙인이나 편견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견없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용기를 내신다면, 그간의 막막함을 헤쳐나가는 데 쓰일 반짝이는 등불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길을 돕겠습니다.

둘, 현직 교사/예비 교사 맞춤 강좌

“호모포비아적 제도 교육 현장, 그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는 관계맺기”

대상: 제도 교육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십대여성이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현직 교사/예비 교사들 (선착순 20명)

그간 고민 나눌 동료 교사 한 명 없이 학생들과 외롭게 분투해 오셨다면, 우리 만나서 그 고민을 나누어 보아요. 짝 막힌 교육 현장에서 이반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알게 모르게 해 오신 교사 분들이 계시다면, 그 노하우를 이 자리에서 공유해도 좋겠고요. 교사로서 학생들의 동성교제를 잘 납득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의 물꼬를 트고 싶다는 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프로그램

1강: 7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8시 30분

동성애, 알고 이해하기 + 십대여성이반 상담 사례 나눔

2강: 7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4시 30분

영상물 시청 및 수강생 고민 나눔 + 새로운 관계맺기 연습

- 이춘기(Puberty, 윤재상, 2008년, 16분)

- 이반검열1(Lesbian Censorship in School 1, 여성영상집단 움, 2005, 27분)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 교육장

지하철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다가 다솔동물병원 골목으로 우회전 하여 그 길을 따라 계속 오시면 왼쪽으로 시민공간 나루 건물이 보입니다. 지하로 내려 오세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 각 맞춤 강좌 (총 2강) 당 이만원 (20,000원)

간단한 먹을거리가 마련됩니다.

교육 내용이 담긴 작은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문의 및 신청

메일 lsangdam@hanmail.net / 전화 02-703-3542

신청은 6월 21일부터 각 맞춤 강좌의 1강 시작 당일까지 받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lsangdam.org

02-703-3542 (사무)/02-718-3542 (상담)

lsangdam@lsangdam.org (사무) lsangdam@daum.net (상담)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